'라오스 원격지 고등학생 취학지원사업'의 검증

-사카이 히로오미(坂井弘臣) 전 주라오스 특명전권대사를 중심으로

사카이 하나미 (구마모토대학)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하 라오스)은 후발 개발도상국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ODA) 및 NGO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1991년부터 대 라오스 최대 원조국(DAC · OECD 기준)으로, 현재에도 '후발 개발도상국 탈피를 위한 경제사회 기반 강화'라는 기본 방침 아래에 원조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한 조사(2000년도, 2005년도)[1]에 따르면,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의 6~70% 정도가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임의단체이며, 일본의 사업대상자 · 참여자의 약 90%(2000년도)가 '지역 · 민간'(대학생, 초중고교생, 교육관계자 · 교육기관, 지역 지도자 · 비영리단체 관계자, 재외일본인, 일본인 일반을 지칭한다)에 해당하여, 비전문가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자기평가 및 · 제3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30% 정도에 그쳤는데, 실시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국제교류활동의 성과를 적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평가방법 개발이 충분하지 않아서'(약 40%), '평가 작업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약 30%)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NGO의 사업평가에 대해서는, 사업 개선이나 자금원조자에 대한 설명책임 수행을 위해 평가가 중요시되는 한편으로,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실정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라오스에서 2000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원격지 고등학생 취학지원사업'(이하 취학지원사업)과 이를 실시해온 임의단체인 '구마모토 라오스 우호협회'(이하 협회)를 주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①협회의 발기인이자 명예회장인 고(故) 사카이 히로오미(坂井弘臣) 씨의 생애를 파헤치고, 이를 통해 ②취학지원사업이 개시된 배경의 일부분을 밝히는 것이다.

2. '라오스 원격지 고등학생 취학지원사업' 검증 프로젝트

이 장에서는 구마모토 라오스 우호협회가 2019년부터 진행 중인 '라오스 원격지 고등학생 취학지원사업' 검증 프로젝트에 대해 개관한다.

협회가 오랜 기간 동안 실시해 온 취학지원사업은, 2000년도 입학자부터 시작해 입학자 모집을 중단한 2014년도, 2015년도를 제외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20~50명의 라오스 원격지 출신 중학교 3학년생을 독자적으로 선발하여, 수도 비엔티안의 비엔티안 고등학교에 입학시키고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가리킨다. 그러나 취학지원사업에 대한 기록작성 · 평가 ·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바, 협회에서는 2019년부터 취학지원사업 검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검증 프로젝트는 '취학지원사업의 역사를 전승하는 것'과 '일본 · 라오스 수교 70주년이 되는 2025년에 출판물을 간행하는 것'을 목표로, 협회 내부에 설치된 '사카이 대사 조사 그룹'(이하 조사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 활동은 A. 설문조사, B.인터뷰 조사, C. 자료 조사로 구성되며, 필자는 조사 활동 계획을 코디네이트하는 협동실천자로서 2019년 4월부터 협회 멤버로 합류했다.

---

1) 國際交流基金「國際交流活動団体に關する調査」 (2000年度) 、國際交流基金「國際交流活動団体に關する調査」 (2005年度)

취학지원사업이 실시된, 200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을 사업재원에 따라 세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도너 제도(2000년～2009년)는 개인 및 단체·조직 등의 기부금으로 취학지원사업이 운영된 기간이다. 원조자(기부자)는 후원자, 즉 도너로서 피원조자와 결연을 맺었다.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방식'은 원조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피원조자(학생)는 졸업 시에 원조자에게 편지를 썼다. ②무라카미 기금은, 도너 제도를 이어가기 어려워진 시기에 현재의 협회 부회장인 무라카미 씨의 제안으로 시행되었다. 라오스의 은행 예금이자율을 활용한 방식으로, 협회 내부에서 출자자를 모집해 은행 이자로 피원조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③야마모토 장학금(2016년～현재)은 아이치현의 '사단법인 라오스 아동의 미래'가 출자자가 되어 법인사업으로서 급부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3. 사카이 히로오미 씨의 생애

이 장에서는, 본고의 주제 중 하나인 사카이 히로오미 씨의 생애에 대해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서술한다.

3.1 설문조사

검증 프로젝트는 관계자들의 조사 협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를 '원조자(도너)', '원조자(회원)', '피원조자', '회원' 으로 구분하여 4종류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표 작성 시에는 조사 그룹 내부에서 토론을 거듭하여 최종 조사 항목을 설정했다. 모든 조사표에는 취학지원사업의 주축인 사카이 히로오미 씨와의 관련성, 사업에 대한 인상 등에 대한 질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미 회답 수집을 마친 원조자(도너, 회원)의 회답 내용을 살펴본 바, 다수의 원조자가 80세 전후로 비교적 고령에 해당하여, 본 검증 프로젝트 수행이 시급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3.2 자료 조사

자료 조사로는, 일본 외무성의 인사기록, 신문기사 수집 외에, 구마모토 라오스 우호협회에 정리되지 않은 채로 보관되어 있던 자료 정리를 진행 중이다다.

사카이 히로오미 씨는 1936년 2월 19일에 조선 전라남도에서 태어났다. 종전 직후 조선을 떠나 구마모토현 아마쿠사(天草)군으로 건너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 중학교 진학을 위해 구마모토시로 이사했다. 이후 현재의 구마모토시립시라카와중학교, 구마모토현립 구마모토고등학교를 거쳐 구마모토대학 법문학부에 입학했다. 재학 중에는 토목 현장 아르바이트에 매진했다고 한다. 1960년 3월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 외무성에 들어가 태국, 시리아 대사관 서기관, 카라치 영사관 총영사를 거쳐 1995년 10월 라오스주차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됐다. 취임 후 2년이 지난 1997년에는 구마모토니치니치신문 (熊本日日新聞)[2]에 아래 담화기사가 실렸다.

> "라오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어서 1995년에 대사로 취임한 뒤 1년이 채 안 되는 동안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시찰했습니다.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오지에는 비행기를 타고 갔지요". 이러한 행동력의 근원은 "호기심"이라고 말했다. <중략> "대학 시절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아소, 이쓰키무라 등에서 임도 정비 같은 토목작업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수업을 빠지는 날도 많았지만, 아주 값진 경험이었죠". 그의 철저한 현장주의는 대학 시절에

2) 熊本日日新聞、1997年7月2日夕刊

길러지지 않았을까.
<후략>

1999년 6월에 구마모토 라오스 우호협회를 설립하고, 같은 해 10월에 퇴임했다. 취학지원사업을 개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1년에는 사카이 씨의 취학지원사업에 대한 마음가짐[3]을 인터뷰한 아래 기사가 게재됐다.

<전략> 사카이 히로오미 씨(65)는 주라오스대사를 역임하던 시절, 취임 1년 만에 라오스의 18개 지역을 모두 시찰했다. '원조가 필요하면 신청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직접 라오스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략> 교육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라오스는 다민족국가로, 민족마다 언어가 다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입학률은 겨우 70% 정도라고 한다. 사카이 씨는 라오스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물적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나라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그는 구마모토 라오스 우호협회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재작년 퇴임 이후에는 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여'라오스 원격지 고등학생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방의 아이들이 수도의 비엔티안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모아 기숙사를 세우고 3년간 생활비를 원조해줄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는 "이 사업의 장학생들은 우수합니다. 장래가 기대되는 친구들이죠"라며 활짝 웃었다.

그밖에, 사카이 씨가 생전에 소유했던 사진 등의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한 결과, 사카이 씨가 종전 이후에 어떻게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4].

1945년 9월, 조선 여수의 항구에서 밀항선(범선)을 타고 어머니, 이모와 함께 조선을 떠났는데, 도중에 폭풍을 만나 대한 해협을 떠돌다 근처를 지나던 배에 구조되어 쓰시마의 작은 어촌에서 몸을 의탁했다. 이후 우연히 조선에서 아마쿠사로 향하는 배가 이 마을에 들어와, 그 배를 얻어 탔다. 배는 히라도(平戶)를 경유하여 아마쿠사 사키쓰(崎津) 마을에 닿았다.
우리는 사키쓰 교회 바로 뒤에 있는 미나토야 료칸에서 하루를 묵은 다음, 산을 넘어 아버지의 본가가 있는 다카하마(高浜)에 도착했다.
여수의 항구에서 출발한 배가 난파하지 않았더라면, 또 쓰시마의 어촌에서 아마쿠사행 배를 타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하카타(博多)를 경유해 어머니의 고향인 구마모토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을 것이다.
배가 닿은 곳이 아마쿠사였기 때문에 전후 5년간 아마쿠사에서 지내다, 일본이 전후 안정기에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가족의 앞날이 캄캄한 채로 내 고등학교 진학 문제를 맞이했다. 어머니는 내 진학을 이유로 아버지와 이혼하고 구마모토로 향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나의 생활이 시작됐다. 이듬해인 1951년 4월, 시라카와중학교에 입학했다.
내 전후(戰後) 는 이곳 사키쓰에서 시작됐다.

---

3) 熊本日日新聞, 2001年6月29日朝刊　三社
4) 사진 : 1992년 11월 2일 · 사카이 히로오미 촬영, 사진 뒷면 문장: 집필시기 불명 · 사카이 히로오미 작성

사카이 씨는 2010년 11월 서보중수장(瑞宝中綬章)을 수여받았고, 2017년 1월 23일 구마모토시에서 서거했다. 협회는 2013년에 서일본국제재단 아시아공헌상을, 2021년에는 외무대신표창을 받았다.

4. 연구의 결론 및 앞으로의 과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겠다. 본 연구는 구마모토 라오스 우호협회 내에 설치된 '사카이 대사 조사 그룹'과의 협동실천으로써 설문조사와 자료 조사를 실행한 결과, 협회의 발기인 사카이 씨의 생애의 일부분을 밝혀냈다. 특히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던 협회 소장의 방대한 자료 정리에 착수하여, 취학지원사업이 사카이 씨의 주라오스대사 시절 전국 현장실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사카이 씨의 성장 환경이 취학지원사업의 기획 의도와 중복되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취학지원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재정 운용 방식과 관련 사업은 항상 시기와 요구에 걸맞게 변화하고 있다. 초기 피원조자(현재 40세 전후)들은 "우리(라오(스)인) 스스로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사회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른바 '원조자와 피원조자의 관계' 또한 '출자자와 고등학생'의 구조에서 변화해 가고 있다.

앞으로도 '라오스 원격지 고등학생 취학지원사업'의 전체상을 해명·검증하기 위해 자료 조사를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양해를 구한 회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의 말: 본 연구는 구마모토 라오스 우호협회 및 '라오스 원격지 고등학생 취학지원사업'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참고문헌

山田紀彦（2018）ラオスの基礎知識」めこん.

加藤宏（2021）「開發協力の歷史を研究する意義について—開發協力實務者の立場からの考察—」『國際開發研究』30巻1号，2021年6月，5-16頁.

國際開發センター（IDCJ）評価部（2017）「NGO事業評価10ステップ（國際開發センター）」國際開發センター（IDCJ）評価部，第1.4版，2017年12月改定.

(번역책임자:양남윤)